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9. 07. 27. ~ 2019. 10. 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가 -0.87%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동 기간 +1.00%를 기록한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1.87%pt 낮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가나긴 무역분쟁 끝에 1차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내년부터 부진했던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펀드는 일부 가치주와 방산, 조선 등의 업종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펀드가 시장 대비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전기전자 및 의약품 업종 위주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작은 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 탄핵 심의 및 홍콩 인권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 등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할만한 이슈들이 언제 부각될 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러한 이슈들은 투자자로서 통제 및 예측할 수 없는 이슈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펀드는 이러한 변수들이 가져오는 공포로 인해 잠시 시장의 외면을 받았지만 가치에는 큰 변함이 없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 시장 하락 국면에서 주가 하락 폭이 컸던 업종 대표 우량주들의 산업 내 경쟁력과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의 추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펀드는 업종 내 대표 우량주 비중을 늘리고 각종 변동성 높은 외부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가는 기업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9. 10.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0.87%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9. 07. 27. ~ 2019. 10. 26.) -0.87%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1.00%인 것에 비하면 1.87%pt만큼 낮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26.18%

비교지수 : +8.79%

비교지수대비 : +17.39%pt

최근 3년 수익률

+7.44%

비교지수 : +4.00%

비교지수대비 : +3.44%pt

최근 1년 수익률

0.00%

비교지수 : +2.95%

비교지수대비 : -2.95%pt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24,021 백만원
순자산 총액

-1.43%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1.43%pt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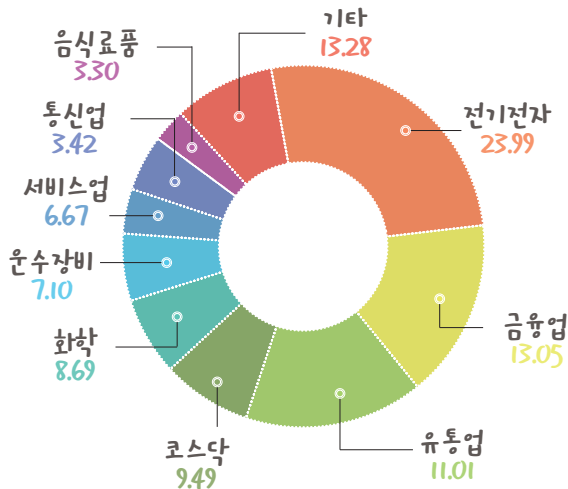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9. 10.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7.93	6위	현대모비스	1.72
2위	LS	3.35	7위	KB금융	1.70
3위	CJENM	2.43	8위	KCC	1.66
4위	삼성물산	1.85	9위	한국조선해양	1.64
5위	SK텔레콤	1.74	10위	KT	1.62

2019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kt

KT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LTE보다 빠른 5G 기술 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경쟁사 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 KB 금융그룹**

KB금융

KB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속회사들은 은행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 대부업,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SOE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선박을 설계 및 건조 하는 조선업, 해양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 및 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9. 10.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81,097	2,613

매도	
수량	금액
116,817	2,741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1.74	46.59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9.01.27 ~ 2019.04.26
10.30

2019.04.27 ~ 2019.07.26
13.80

2019.07.27 ~ 2019.10.26
11.74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배당주 이야기(2)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 지난 배당주 이야기에서 배당의 복리효과와 배당주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럼 그 전에 간단히 배당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짚고 가볼게요. 배당금이란 어떠한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보유 지분의 일정 %만큼 돌려주는 현금을 뜻해요. 즉, 배당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분배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의 일정 %를 배당으로 꾸준히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업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현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어서 이를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과 기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의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많은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면 그만큼 미래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돈의 총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특정 산업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벌어들인 현금을 미래 사업을 위해 재투자하고 어느정도 성장이 완만해진 기업은 비교적 배당을 많이 한답니다.

그럼 대다수의 기업들은 배당을 어느 정도 자주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연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하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POSCO, 두산 등과 같은 대기업은 분기(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하준이의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하준이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짧은 기간 투자로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신문을 통해 접하고 배당주 투자를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배당이 이루어지는 A기업의 주식 1주를 만 원에 샀는데요. 하준이는 언제까지 이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	23	24	25 성탄절	26 배당을 위한 주식 매수 마지막 일	27 배당락일	28
29	30 주식시장 마지막 거래일	31 배당기준일 (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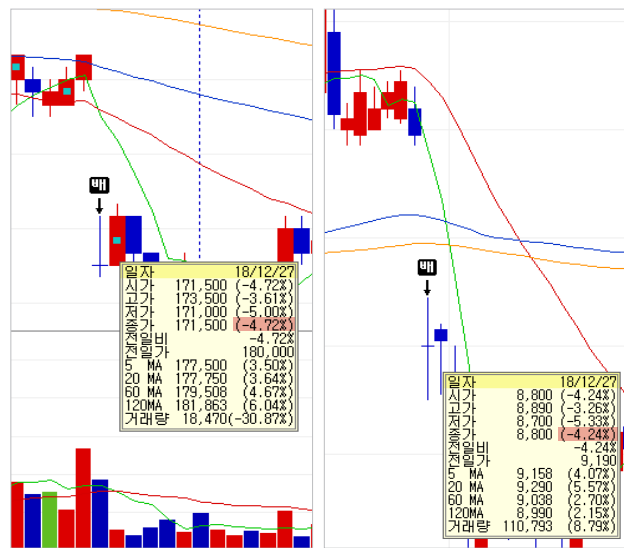
[12월 달력]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배당주 이야기(2)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해요. 배당은 배당기준일의 주식 시장 종료 시점까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주식 거래의 경우 구매 시점으로부터 2 영업일 후에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준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 전 주식시장 종료 시점까지는 주식을 구매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같은 경우는 12월 26일까지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A기업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해볼게요. 단순히 생각하면, 하준이는 12월 26일 하루에 1주 투자를 통해 약 5%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18.25%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거예요. 그렇게 배당금은 대부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한달 뒤에 세금을 제한 금액만큼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일(27일)에 주식을 되파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더라도 배당 기준일(31일) 이후인 2020년 1월 2일에 실질적인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배당기준일에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배당주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 즉, 주식의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5%의 수익률보다 더 큰 주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배당락일 주가 하락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지속적으로 이익을 높여나갈 수 있는지, 보유 자산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 하답니다. 우리 주니어 경제박사 펀드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일부 투자를 하되,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시장에서 제값을 못받는 즉, 앞으로 주가가 올라 자본차익까지 거둘 수 있을만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어요.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들도 연말이 오기 전까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인지, 정말 시장에서 배당락일에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지,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일어나고 추후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등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0.87%로 비교지수 수익률 +1.00% 대비 1.87%p 하락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X 90% + CD91 X 10%) 이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가치주와 전기전자 장비, 방산, 조선 등 업종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동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증권, 건설, 전기가스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대비 낮은 비중으로 보유한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였고 저평가된 중소형주의 부진도 지속되며 비교지수 대비 다소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운용경과>

주식시장은 7월까지의 하락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완화 소식과 함께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의 통화 완화 기조가 지속되었고 반도체 업황 및 국내 기업 실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 및 기술수출 기대감으로 의약품, 신규수주 기대감으로 조선업,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실적 부진 우려로 철강 및 금속, 운송 업종과 주택 및 해외수주가 부진한 건설, 금리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금융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한국 주식시장은 배당수익률, 순자산가치 등 고려 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이익 증감률도 저점구간을 통과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 외 한국 주식시장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인 한국의 수출금액과 상장기업의 이익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IT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내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업 실적의 추세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약하며 불안한 대외변수 우려도 존재하여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위험선호가 차츰 확산되며 지수 하락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던 우량주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3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 되며 내년에 대한 기대감 점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의 점진적 해결, 유럽의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감소, 한국 및 각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입니다.

지수 하락과 함께 우량 성장주, 가치주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여 높은 배당수익률에 더해 향후 주가 회복으로 자본 차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업종 내 대표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지연된 투자가 진행될 산업,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하며 지주, 전력 및 조선 등 산업재, 전기전자, 제약 등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며 한국기업의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도전하며 극복할 수 있는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한 재무구조와 수익가치를 지닌 기업을 바탕으로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